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미술관 3층 강당

문 학

6월 30일(월) 오후 2시

■ 1회 문학
6월 30일(월)

■ 2회 시각예술·다원예술
7월 1일(화)

■ 3회 연극·무용
7월 2일(수)

■ 4회 음악·전통예술
7월 3일(목)

■ 5회 국제문화예술교류
7월 4일(금)

■ 6회 생활 속의 예술·문화복지
7월 7일(월)

■ 7회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7월 11일(금)

차 례

• 발제

- 문학 분야 창작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도종환(작가)
- 문학예술지원의 방향전환과 지원형태의 개선방안 10
오양호(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

• 토론

-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22
박철화(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교수)
-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전한 불륜을 맺을 수 있는가 26
박금산(작가)
- 문학 분야 창작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위한 토론사항 32
이경호(문학평론가, 『작가세계』 주간)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 사회: 홍정선(인하대학교 교수)	
14:00	개회선언 및 인사말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
발제(각 20분씩)	
14:10	도종환(작가,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오양호(평론가,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
토론(각 10분씩)	
14:50~15:20	- 박철화(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교수) - 박금산(작가, 『바디페인팅』 저자) - 이경호(문학평론가, 『작가세계』 주간)
15:20~16:00	지정 및 자유토론

발제

문학 분야 창작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도종환(작가)

- 전략적인 목표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예술의 주류 장르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적용하고 지원할 필요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인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 육성
-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획 사업 필요
 - 생활속의 문학, 삶의 질을 높이는 문학 프로그램 운영
 - 창조산업 센터로 운영하는 문학관

1.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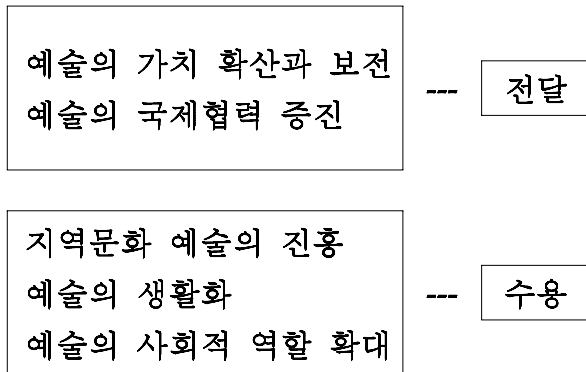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속에 2005년 발족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및 핵심가치

- 예술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 예술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

- 전략목표 · 핵심과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창조



8대 지원 목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2.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1. 예술가의 창조 역량

- 예술가의 창조 역량은 기초 예술, 과학, 산업 등의 가장 핵심적인 힘
- 예술의 창조 역량은 미학적 상상력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상상력의 원천임
(빌게이츠의 독창적인 사고와 디자인 천재 필립 스타크의 아이디어도 모두 시적 영감에서 나왔다고 함)
-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성과 상상력
- 작가의 창조적 역량은 인터넷이나 연극, 영화 등 다른 예술 장르의 원천임
- 창조적 미술은 모든 문화산업의 근원이 되면서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임

2-2. 예술가의 창조역량 지원방식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방식 개선방안」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의 기본방향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문제를 제기함

첫째, 예술지원의 철학과 방식의 재정립

- 시장실패에 따른 부족한 비용의 보전 방식에서 전략적인 목표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전환
 - “창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NEA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에 창조자에게서 예술소비자로 핵심고객층을 전환하였음(물론 이에 대한 유용성과 혼선에 대한 논란이 NEA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 ☞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심의위원은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반면에, NEA의 경우 비전문가(layperson)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비전문가의 비율이 14%에 달함.
 - ☞ 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의 경우, 선택된 작품을 공급자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접근하여, 경험재의 특성을 가진 예술의 특성상 예술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향유능력과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식, 수요자의 개발과 저변의 확대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임.

둘째,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목표의 명확화 및 성과 제고

- 선택과 집중의 지원 패러다임을 문예진흥기금사업 전체에 적용
- 선택과 집중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가 필요함
 - ① 선택을 하는 가치와 목표 및 전략이 명확하여야 함.
 - ② 집중을 위한 규모와 범위를 위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대상범위
-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목표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간의 전략적인 성과목표 등의 설정이 필요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성과관리는 반드시 양적인 측면(관객수, 재정, 판매, 사업횟수) 만이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른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1회성 프로젝트 중심에서 단체지원 중심으로 전환
 - 영국은 단체 중심 지원이며, 미국은 프로젝트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NEA의 1 보조금이 개런티로서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식 보다는 공공재원 중심의(우리나라의 민간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영국식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회성 프로젝트 보다는 지속적인 프로젝트나 단체 중심, 개인 보다는 단체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펠로우십 제도는 이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패러다임이 전제하는 대로 일체의 프로그램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 원칙과 기초라는 것임. 선택과 집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젝트 단위, 1회성 기준의 지원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소액의 지원도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략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직접지원 위주에서 사회적 프로젝트, 간접지원 방식의 대폭 확대 도입

- 직접지원은 예술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고, 민간이나 지역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생활속의 예술 확대" 방식은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을 넘어 이러한 사회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임.
- 직접지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도 사회적 프로젝트의 관점과 연계됨.
 - 직접 지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간접지원 방식은 지원규모에 비해 혜택이 보다 다수에게 전달되며, 파급효과가 지속적이고 크다는 장점이 있음.
 - 간접지원은 예술지원이 시장실패에 따른 자금 보조(지원) 중심에서 예술(시장)의 역량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예술진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식과 수단을 도입한다는 것임.

정광렬의 세 가지 지적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기조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제안은 아니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는 공감함

시장실패에 따른 부족한 비용의 보전 방식에서 전략적인 목표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문학 미술 연극 등 많은 예술 분야가 아직도 시장실패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됨

같은 발제문에 나타나 있듯이 2006년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예술인들이 56.1% 200만원 이하가 20%이며 월평균 수입액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27.2%나 됨

51~100만원(9.9%), 21~50만원(9.5%), 10만원 이하(5.8%), 11~20만원(3.7%)의 순서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수준임.

그 중에서 특히 문학, 연극, 미술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진예술가 육성 지원은 1회성 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펠로우십 제도 도입 필요. 분야별 집중 육성 계획을 세워 추진

10년간 국제적 수준의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3. 수요자 중심의 향유활동과 참여활동 - 예술의 생활화

- 참여활동은 비전문인이 창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향유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활동
- 대중문화활동이 참여 활동 위주로 바뀌고 있음 창작기반 확대
- 작가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에 참여
- 생활 속의 예술
- 지식교육에서 문화 교육으로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화예술교육

☞ 생활 속의 문학, 삶의 질을 높이는 문학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소설 읽기'

- . 직장 소모임과 함께 하는 '좋은 시 함께 읽기'
- . 여성리더십 센터와 함께 하는 '감성적 리더십을 키우는 시 읽기'
- . 국어교사와 함께 하는 '문학을 통한 문화교육'
- . CEO를 대상으로 하는 'CEO가 읽어야 할 시'

☞ 창조산업 센터로 운영하는 문학관

- . 작고문인의 메모리홀 개념이 아닌 주민들의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 . 문학관을 중심으로 전시 공연 교육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문화마을로 확대
- . 시를 넣어 제작한 다양한 문화 상품 개발 및 판매

4. 문화예술의 매개활동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매개활동과 계승활동(이영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 공간적인 매개활동, 문화예술의 지역간 전파 확산을 위한 활동
- 매개활동, 오프라인에 의한 문화예술 공급과 온라인에 의한 보급활동

☞ 사이버문학 광장 사업의 활발한 운영

☞ 문학나눔 사업 중 문학집배원 사업

- . 현재 32만명에게 온라인으로 시 배달
- . 대구교육청 전 교사와 학생에게 보급
- . 서울시와 함께 지하철 3호선 모니터로 전송
- . 전국단위로 확산해 나갈 필요 있음
- . '1주일에 시 한 편 읽기'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있음
- . 저예산 고효율 사업

5. 문학분야 지원사업의 현황

- 2008년 4월 14일에 있었던 문학분야 정책 간담회 자료집에 의하면
 - 2005년도 문학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0%가 증가한 109억원으로써 '05년도 전체 경상사업비의 9.1%를 차지하고 다른 장르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2~4배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학 분야 중심의 사업 및 예산편성 기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함
 - 복권기금 축소로 인해 2007년 문학분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9%가 감소된 90억원, 2008년도에는 그보다도 10억원 가량이 축소된 80억원 규모로 절대치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장르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아래 자료에서 보듯 2004년부터 전입된 복권기금으로 전체 예산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 문학분야 예산만 400%가 증가한 것이 아닌데도 문학분야만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있음
 - 복권 기금이 줄면서 2006년 111억 9천, 2007년 90억 2천, 2008년 80억 2천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장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장르와 동등한 상대비교를 할 뿐 문학인구의 숫자와 문학의 역사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표 1> 문예진흥기금 사업규모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비	270	271	267	329	809	1,160	1,196	1,080	833

- 위에 인용한 정광렬의 글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문학 분야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기술 그 근거로 정기공모사업의 장르별 배분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표 4> 정기공모사업 장르별 배분비율

(단위:백만원, %)

	2006		2007		2008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문학	2,447	18	2,633	15	2,909	16
시각예술	2,208	17	2,913	17	3,206	17
음악	1,226	9	1,955	11	2,081	11
무용	1,375	10	1,895	11	2,021	11
연극	1,609	12	2,214	13	3,424	19
전통예술	2,874	22	3,165	18	3,151	17
다원예술	849	6	1,080	6	1,055	6
문화일반	728	5	497	3	606	3
서울공연 예술제			850	5		
계	13,316		17,202	100	18,453	100

-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지만 가장 높은 것은 연극이고 그 다음이 시각예술, 전통예술이며 문학은 그보다 낮은 액수를 지원했다. 2006년에는 두 번째였다가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배분비율이 점점 하락세를 보여 왔다. 그래도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 비해볼 때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 그러나 같은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노르웨이의 경우(2007)는 문학 및 출판 32%, 시각예술 5%, 음악 29%, 공연 16%, 아동·청소년 4%, 건축디자인 10% 등으로 배분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문학에 대한 접근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임(지원은 작가에 대한 직접 지원 보다는 주로 작품을 공공도서관에 구입 배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세계화의 시대 영국과 접하여 영어의 위협에 대처하여 노르웨이의 언어와 언어의 다양성, 풍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함

- 문학은 개인의 창작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책으로 출판되어 사회의 지적·인문학적 기반이 되며 예술과 문화의 기초가 되는 분야임

- 개인창작집 발간사업이 전략적인 목표중심 사업이 아니라는 점 수요자중심 사업이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라는 점 선택과 집중이라는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음
- 어떤 전략으로 창작을 활성화 하고 예술가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며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문학이 개인 창작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됨
- 연도별 신청건수가 매년 확대되어 예산 배정 액이 증대되고 신청건수는 줄지 않는 순환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예산 배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한국근대문학 100주년 기념사업이나 작고문인 선집발간 사업 등과 같은 문학특성화 사업을 꾸준히 창안해 내는 일이 필요함

6. 맺음말

- 난관에 부딪힐 때는 우리가 세운 비전과 미션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함
- 예술, 예술가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는 최우선 과제임
- 예술창작 - 매개 - 향유는 통합적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함
- 전략적인 목표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예술의 주류장르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적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인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 육성
-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획사업 필요
- 예술 지원 사업에 지나친 시장원리 도입 경계
-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미래를 내다보고 집행되는 예술정책
- 분파적 입장이나 장르 이기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통합적 시각 필요

발제

문학예술지원의 방향전환과 지원형태의 개선방안

오 양 호(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

- 지원 선정 축의 변화
- 개인 중심 지원에서 단체 중심 지원으로
- 문예지 고료 지원 제도 부활
- 문인의 이원제(二元制)를 통한 한국 문학의 특징 지속과 현행 제도의 변화유도에 의한 문학적 성취제고

1. 왜, 지원 선정의 축을 돌려야 하나

나는 지난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예진흥기금지원 신청을 두 번 했다. 첫째의 것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경도출신 한국문인제'이고, 둘째 것은 '작고문인선집 발간사업'이다.

나는 첫째 사업을 위해 문화예술위원장 면담 신청을 두 번 했는데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사업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둘째 것은 그래도 결과가 발표되어 어떤 성향의 문인이 심사를 했고, 어떤 성향의 작고문인이 선정되었고, 어떤 지원자가 '합격'했는가를 알았다.

현재 절대다수의 한국문인들이 말하는 예술정책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정책'이고, '그들만의 축제'이다. 절대다수의 문인들이란 한국문인협회 회원을 말하는데, 2008년 6월 25일 현재 한국문협 회원은 9766명이다. 그런데 이 회원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의 수혜자는 내가 들은 바로는 두 사람 뿐이다.(내가 과문한 탓으로 이런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하는지는 모르겠다. 소설가 2명 외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지만, 적어도 내 주변 문인들의 경우가 그렇

다는 말이다)

2008년도 문학예술위원회의 810억 여원의 예산 중 한국문협이 받은 지원금은 7500만원(원고료 지원, 해외문학심포지엄, 청소년 문예지원 등), 그러니까 1만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받은 지원금이 800억의 1%도 안 된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주주의는 '다수'논리에 서 있다. '예술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문협의 문인도 일정한 제도적 절차를 밟고 등단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격 미달자는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 공화국의 예술 정책은 1만명 회원의 문인단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어떤 근거에 의해 무슨 힘으로 이런 행태가 자행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촛불도 켜지지 않는다. '숫자의 논리로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국문학의 과거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문인협회의 역사적 위상을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국문인협회의 내력과 그 순수문학 60년이 도달한 오늘, 한국문학의 자리

한국의 문인이 두 파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광복직후 부터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문학가동맹과 그에 맞선 청년문학가협회가 발족되면서 한국의 문단은 양단되기 시작했다. 광복 공간의 문단에서 현재 한국문인협회의 전신이 되는 청년문학가협회는 김동리, 조연현 등 당시로서는 청년인 문인들이 관여했고, 오늘의 민족작가회의와 그 성향이 닿는 조선문학가동맹은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등 좌파 맹장들이 그 단체를 이끌었다. 춘원, 육당, 김동인 등은 일제 때의 전력 때문에 칩거 중이었고, 그 외 대부분의 문인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그 광복공간을 '구름에 달 가듯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렇게 가던 세월 다음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동족간의 사상전쟁 6·25가 터져 수백만의 사람들이 빨갱이, 안 빨갱이가 되어 총으로 쏘고, 칼로 베고, 대창으로 상대의 가슴을 찌르며 싸웠다. 이런 전쟁 때 우수한 문인들은 군가를 지었고, 남쪽 문인은 국군의 진영에서 북쪽 진영은 인민군의 막사에서 이데올로기로 터진 동족간의 전쟁에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종용하거나 적의에 불을 붙이는 글을 썼다.

고개 들어 하늘을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스스로의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 길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 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조지훈, "다부원에서", 1950>

산 옆 외 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푸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고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모윤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나는 광주 산곡을 해매이다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1950>

나의 따바리 가자/ 대구,진주를 거쳐/ 여수,목포,부산으로/ 아니 제주도까지/ 가자 나의 따바리!<안용만, "나의 따발총", 1950>

길가에서 울며가던 그 아이도/ 피 즐기는 양키들의 과녁으로/ 백여 발의 총알을 맞았다.<조기천, "조선은 싸운다", 1951>

개천을 뒤덮고 찬성에 살을 에여내리는/ 어랑천 찬 물결에 치마폭 적시며 / 포화 눈보라처럼 퍼붓는 적선에서/ 물을 길어 불에 단 증기충신을 식히여/ 위태로운 순간을 구한이 누구냐/ 어랑천 어랑천아 말하여보라.<김순석, "어랑천", 1951>

남쪽의 조지훈과 모윤숙은 전쟁의 비극을 호곡했다. 북쪽의 안용만, 조기천, 김순석 역시 전쟁을 고무충동했고, 남조선해방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애국행위라며 전의를 자극했다. 남이든 북이든 모두 그 때를 대표하는 시인들이다.

한반도의 문학은 이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수난 속에 존재해왔다. 4·19가 일어났을 때도 문인은 그 현장에 있었고(신동문, 『아, 신화같이 다비테군들』) 5·16이 터졌을 때도 문학은 그 역사를 노려보고 있었다(김지하의 "오적", '청맥' 지와,

조동일의 “시인의식론”).

1970년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김동리가 어느 문학 강연, 『한국적 문학사상의 특질과 그 배경』(조선일보, 1978. 9. 13.)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말을 쓰자 구중서와 임현영이 ‘현실고발이 사회주의인가’ ‘위험한 사상의 올라미’라며 맞받아쳤다. 여기에 김동리는 ‘문학이 누구 편에 서야만 하나’는 말로 순수문학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사실은 젊은 두 진보적 평론가에게 판정패를 당했고, 그 후 한국의 문학은 80년 오월을 거치면서 리얼리즘이 전 문단으로 확대되었다.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80년대의 민중문학은 『태백산맥』의 엄청난 판매부수만으로도 그 형세 설명이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박노해 현상』(등애, 1989)의 걸출한 노동자 시인 탄생 찬탄, 『문학과 역사와 인간』(한길사, 1991)에서 입을 모아 『태백산맥』을 칭찬하는 당대의 대가 고은, 김윤식, 권영민 등의 접신된 듯한 진보논리, 그리고 『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최원식 등의 진보논리 개발과 백업은 이 땅에 순수문학의 가치를 폄하하고, 종자를 말리는 형국으로 몰아갔다.

시도 리얼리즘과 만나더니 그 논리는 드디어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실천문학사, 1992)로 발전했고, 이런 문학 분위기에 386세대의 허위지식인 4인방(이재교, ‘허위지식인 4인방에 돌아간 부메랑’, 조선일보, 2006, 12, 9) 강만길, 최영희, 안병직, 백낙청이 더욱 가열찬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인문학적 패러다임은 드디어 뒤 바뀌고 말았다. 그런 어름에 『인물과 사상』이란 잡지가 인민재판식으로 보수적 지식인을 메다꽃던, 짧았지만 이성상실에 가까운 문화내셔널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이런 진보 논리를 소설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신문칼럼이나 문학 강연 등을 통해 진보운동이나 진보적 인사에 대해 비판을 가하던 작가 이문열이 그의 순문학론으로 맞섰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석궁을 맞고 쓰러졌다. 이문열은 그의 출신성분으로 하여, 한 정당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선택」 「아가」와 같은 부르주아적 문학 성향으로 하여,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홍위병 발언’까지 합해져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 있으면서 죽은 송장이 되는 왕따를 당했던 것이다.

2002년 10월 청명한 가을날 경기도 이천 마장면 장암리에 이문열의 책을 ‘시신’으로 하는 해괴한 장례식이 벌어졌다. ‘인사모’(『인물과 사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30여 명이 마을 어귀에서 이문열의 책 733권을 상여 형상으로 묶

어 부악문원(負岳文院)으로 들어가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나선 사건이 벌어졌다. 이문열의 책표지 사진을 붙인 영정을 든 7,8세 여자아이 둘을 앞세운 장의 행렬은 마을 앞에 당도하여 20대 한 여성이 '한 시절을 장식했던 천재작가의 천박한 곡학아세를 장송하며'란 조시를 읽었고, '인사모' 대표의 '이문열의 홍위병 발언은 빨갱이 사냥에 다름 아니다'는 조사 후에 책 장례식이 엄숙히 이뤄졌다.

그때 우리 문인들은 무엇을 했던가.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법은 없다며 길을 가로막던 그 장암리 사람들의 뉴스를 대하면서 문인들은 무슨 말을 했던가. 박완서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묵했다. 왜 그랬을까. 진보적 리얼리스트인 그들의 가열 찬 기세에 눌렸고, 육탄 6용사처럼 보수진영을 향해 달려드는 행위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순수문학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던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민작의 고문이었던 홍상화의 『디스토피아』가 이런 문학의 좌경화 현상을 정면으로, 그것도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왔다. 이 소설은 지금까지 좌경문학의 대표작가로 간주되어 온 작품을 실명으로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태백산맥』은 가장 절실한 시기에 가장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모험적인 소재를 당대적 역사 현실에 밀착시켜 운동화 함으로써 세계문학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 전범'을 만들었고, 80년대 민중시는 '노동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로서 형상화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문학과 노동운동, 나아가 변혁운동의 질적·양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디스토피아>는 이런 문학을 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 피를 받은 사생아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함으로써 30여 년 동안 한국문단을 지배해온 리얼리즘문학의 근본을 뒤엎어 버렸다. 김남주의 경우, 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민족시인'이라 불렀고, 그의 시 『조국은 하나다』는 통일문학의 한 전범으로 간주되고 있던 판에.

권력의 눈 앞에서 / 양키 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 자본가 개들의 이빨 앞에서 / 조국은 하나다 /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2005년 7월 24일 남북한 문인 2백여 명이 백두산 천지에 모여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할 때, 적개심과 분노가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가 남한 사회를 질타하듯이 낭송되었다. 시인 김남주는 이렇게 남북이 함

께 내 세우던 민족의 대표문인쯤 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디스토피아>는 이런 작품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좌경화로 몰고 가는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을 지지한 지식인은 책임 없는 난봉꾼이라고 공격하였다. 이런 점은 한국의 당대문학을 떠받치고 있는 좌파 리얼리즘에 대한 최초이자 최대의 반기이며, 민족주의 리얼리스트들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었다(홍상화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MBA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세모에 와서 문단의 분위기가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작 진영의 대장 고은이 백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신작 시집이름을 『부끄러움 가득』(시학사)이라 붙이고 '온갖 의문들이 사라졌습니다. / 하늘 밑 / 곧 떨어질 단풍 잎새들에게 / 남아 있는 생이 눈썹 밑 새롭습니다. / // 부끄럽습니다. / // 세상이 소경 하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 / 가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라며 그간의 글쓰기를 자조(自照)했다(2006. 12. 9. 조선일보). 비슷한 시기 시인 정현종이 북한의 핵을 공격했고, 미국에 가 있던 이문열이 잠시 돌아와 '왜 왼쪽으로만 엮어지란 말인가'라며 386세대를 나무라던 세상 정서의 우회적 조짐(兆朕)을 고은이 사뿐히 타고 오르며 남 먼저 세상을 향해 펼쳐려 누웠다. 세상이 에워싼 소경 한 사람이 누군지 알 듯도 한데, 그를 위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났던 그 고은이 그가 아직 건재한데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이런 문단 기류는 마침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한국 현실 정치상황을 자유주의 시각으로 비판한 복거일의 『보이지 않는 손』(문학과지성사, 2006)과 이문열의 도저한 인문주의적 보수 의식이 더욱 디테일화된 세태소설 『호모엑스쿠탄스』(민음사, 2006)가 출간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 두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화제작이 되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기류를 조성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런 틈새로 7,80년대 민중문학이 사라져 가는 자리에 2000년대 강남문학이 태동하고, 우리 시대의 도시적 삶의 풍속을 그린 『달콤한 나의 도시』(정이현) 같은 중간소설이 뜨고, 강남을 관음종의 시선으로 풍자하던 유하의 시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가 떠난 공간엔 이른바 강남리얼리즘 소설 『내 아들의 연인』(정미경),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또 하나의 중간문학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발을 맞춰 지금, 걸어 나오고 있다.

그런 후 마침내 2007년 9월 좌파이론의 수장 안병직이 자발적으로 전향하여 뉴

라이트의 대부가 되었고, 헤겔, 마르크스, 루카치, 골드만 등을 등에 업고 힘을 기른 빠세고 입심 좋은 우리들의 그 자랑스러운 민작의 열혈 문인들이 문패를 바꿔야한다며 모였다. 민족의 문제에 신명을 바치기로 한 그 '민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옛날 프로문학의 맹장 박영희가 '잃은 것은 예술이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뿐이다'며 전향했던 그런 선언을 하며 변신을 한 것이다.

3.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 중인 총 문예지수는 316개이다(2008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격월간 26종, 계간 184종, 연 2회 34종, 연간 4종, 월간 48종, 아동문학 관계 20종). 이 잡지들이 생산해내는 작품의 양, 발표자의 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잡지 한 권당 100명의 필진(연간)을 잡더라도 3만명이 넘는다.

이런 잡지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을 프로작가로 볼 수는 없다. 본업이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글쓰기를 '여기' 또는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잘못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문예잡지가 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치열성이 나름대로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런 잡지들은 자생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자발적 구매에 의한 문예지가 간행되는 예는 불과 몇 종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의 범람 속에 문학독자는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잡지들은 저마다의 편법을 동원하여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고들 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모든 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잡지와 문인수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혁파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원래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한국예총을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급조된 목적단체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간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인적구성만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옹 하는 짓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에 코드를 맞춘 인사들이 한국문예진흥원을 폐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급조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겠는가. 한국문예진흥원의 간판을 그대로 두고는 그들이 추

구하는 성향의 목적예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간판을 새로 내걸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실용주의 정권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판을 내리고, 한국문예진흥원을 부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문예지 고료 지원제도 부활

우수 문예지에 원고료를 지원해서 문인들에게 고료 원고료 혜택을 베푸는 제도인데, 과거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시행하여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문예지 자체 원고료가 3천원이라고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고료 3천원을, 자체고료가 5천원이면 지원고료도 5천원을 더 얹어 지불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수많은 문예지 가운데서 어떤 문예지에다 원고료 지원을 해야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간단히 해결된다. 일단 문학단체에서 발행하는 "우수 문예지"(우수 문예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 제정)로 국한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일부 문예지 발행인이 지원 고료를 중간에서 가로챤다는 의혹을 샀고, 그것이 그 제도가 폐지되는 빌미가 되었지만, 지금은 원고료 지불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현행 예술위원회의 위원중심 조직을 개편하고 옛날 문예진흥원 제도로 가는 것이 좋다.

전문위원 11명이 민주적 절차로 회를 운영한다지만 각기 전공이 다름으로써 실제로는 중요사안을 비전문가의 처지에서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진흥원은 30여 년의 전통 속에 제도를 수정보완해온 문화예술정책의 노하우가 쌓인 기관이었다.

넷째, '개인 중심 지원 → 단체 중심'으로 바꿀 것.

개인지원을 잡지지원제도로 바꾸고, 그 위에 각 문예지의 자체지원금 제도를 두도록 유도할 것. 과거(1970~1985년) 원고료 지원정책이 창작지원금제도로 바뀌면서 특징인, 코드 위주의 지원으로 변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의 공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잡지 선정은 전통, 그간 문학에의 기여도, 상업적 자생력들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실사제도를 두면 된다. 이것은 문예지의 범람을 막을 수 있고, 문학현장에 밀림의 법칙을 유도함으로써 문예지간 경쟁력을 자극, 한국문학의 질적 성장을 촉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문인의 이원제를 통한 한국문학의 특징 지속과 현행 제도의 변화 유도에 의한 문학적 성취 제고”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문인의 이원제(二元制)를 통한 한국문학의 특징 지속(持續)과 현행 제도의 변화(變化)유도에 의한 문학적 성취제고(提高)방안〉

1. 취지 : 오늘날은 문인이 문인을 그리워하는 시대이다. 문인이 문인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문인이 문인답지 않고, 문학이 문학답지 않다는 말, 다시 말해 문학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실과 양심의 시대라기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거짓과 불신과 아세(阿世)가 팽배해 있다. 인간사회가 거짓과 불신과 아세로 엉겨있는 한 그 사회는 장래가 암담하다. 그러나 문인들은 일찍부터 거짓에는 진실로, 불신에는 솔직한 인간적 자기체험의 고백으로, 아세에는 참여로 맞서왔다. 문학적 진실과 사회정의가 일치한다는 것은 문학적 진실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증명해 온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문인은 정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문인은 권력과 부의 눈금 밖에 있다. 따라서 문학은 세상의 눈치나 보며 보신을 피할 이유가 없는 인문학의 중요한 갈래다. 간혹 예외가 있었지만 그것은 곧 문학의 역사 밖으로 밀려났다.

세상을 향해 언제나 ‘옳소, 옳소’가 아니라, ‘거짓’을 보면 ‘아니오’라고 외치는 존재가 문학이다. 어디에도 매어있는 신세가 아닌 ‘인간학’이 문학이다. 문학이 어디에 속하는 순간 그것은 문학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다.

2008년 현재 한국문인의 수는 1만명이 훨씬 넘는다. 얼른 계산해서 한국문인협회 회원 9천5백명, 민족작가회의 회원 1천5백명,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문학 활동을 하는 문인 1천여명이다. 이런 사정은 최근 10여년간 많은 문예지가 창간되고, 그 문예지마다 ‘자기나름의 기준’에 의해 문인을 생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문인이 문인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이런 현상에 기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문인이 저마다 글을 씌으로써 지금 한국문화계는 문학의 더미 속에 묻힐 지경이다. 아마추어적 속악한 문학이 문학의 본령을 넘보고 있는 형국이다. 문학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문학도 적자생존, 밀림의 법칙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그야말로 백년하청이다.

지금까지 논급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문학을 문화사업의 하나로 인식하는 관리문학이 문단을 지배 → 전통있는 문예지의 경영위기 → 문학위기 → 인문학위기.
- ② 아마추어 작가가 전업작가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지면 부족 및 원고료 문제 → 전업작가의 감소 → 전업문인의 생활 위기 → 인문학의 위기
- ③ 정체성(正體性)이 없는 문학이 양산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초래 → 문인의 자존심 및 사기저하 → 인문학 침체.

이런 문제는 문인의 이원제 제도로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문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런 추세는 여러 문예지가 시행하는 현재의 등단제도로 보아 계속 될 전망이다. 문인의 수가 많은 것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문학의 질적 저하, 전업작가의 감소, 길게 보면 인문학의 핵심갈래로서 수행해야 할 정체성 형성의 난점 등은 해소하면서 제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2.시행방법 ; 범례. 『2008년도 한국대표시 2000선』 간행.

① 한국의 모든 시인들에게 e메일을 보내어 자신이 올해 발표한 작품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한편씩을 자천받는다.

② 자천된 작품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예를 들면 시전문분야에 10년 이상 활동한 평론가 0인, 전문연구자, 곧 한국현대시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 0인 등으로 구성된 문인단체)를 선정하여 작품의 성취도를 점검한다.

이런 자격규정에서 대학의 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대학의 연구비 수혜제도는 이제 정착되었고, 현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여기에 또 혜택을 베풀 필요는 없다. 문제는 많은 문인들에게 양질의 문학작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석·박사과정의 학생이나 박사취득 후 강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BK21사업 등으로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인들

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생활 무능력자처럼 살아간다. 과거에 상당한 이력을 쌓은 중견, 원로 문인들까지 소자본가가 관리하는 문예지 발행인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대가 오늘날 한국문인의 현실이다.

같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갈라져 있는 북한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상당수의 문인이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속에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제도는 전제적 국가관리에 기인하겠지만, 문학이 언제나 문화의 중심에 놓인다는 원론에서 보면 우리도 이런 점은 크게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민족통일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란 것을 전제할 때 그러하다.

한국문인협회의 많은 회원들은 지금 제2선에 선 문인으로 간주된다. 한 때 문명을 날렸던 작가들도 많지만 생활고 때문에 아세를 해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자본주의 물결 속에 풍요를 누리는 세상과는 너무나 떨어진 채 일종의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새 공화국과 그 예술정책이 밀고 당기는 자리싸움에다 '여전히 잘난체하는 저희들만의 마당'을 형성하자 이제는 거의 기대를 포기한 상태다. 그리고 이런 화이트칼라들의 불만이 사회의 여러 방면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런 문인들을 모두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도 양질의 문학을 생산하며 문학에 순사하는 문인을 찾아내어 그들을 인정하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하자는 의도이다. 예술원회원의 확대, 준 준 예술원 회원, 또는 민족정신함양유공자, 국가정체성형성유공자 쪽으로 대우하여 사기를 높이고, 자존심을 살리자는 의도이다. 왜 문인만 그렇게 예우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 '문인은 원래 문약한데, 오늘날은 이런 존재가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라 이대로 방치하면 문학의 기층이 무너져 내리고 속악한 대중문화가 창궐하는 기괴한 속물의 사회가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문인의 월수입이 고정적으로 1백만원이 되는 문인은 문인의 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문학작품 생산 당사자인 문인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③ 작품을 보낸 문인에게 일정액의 원고료 지급(예, 시 1편당 5만원)

④ 선정된 작품의 경우 일정액의 원고료 추가지급(예, 시 1편당 10만원)

⑤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여 선정된 작품을 전문가의 해석과 함께 『2008년도 한국대표시 2000선』 식으로 간행한다.

3. 기대되는 효과

① 문인의 자긍심이 배가 될 수 있다. 문인 1만명의 창작의욕 자극.

② 양질의 문학작품 및 우수문학생산자 인증 분위기 조성

→ '문학 예술 명품생산자'식 시대감각에 호응

③ 정전(正典)의 전통이 지속(Conventionality)되면서 변화(Refraction)를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문학시장 원리를 발전, 자유경쟁체제 강화, 문예부흥기적 문학전성기 → 자본주의시대 도래와 함께 속악화에 대응하는 인문정신 제고 → 한국문학의 정체성 →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생의 토대구축 → 문화사업 활성화. 가장 한국적인 것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문학 창조유도.

④ 문인에 대한 인식 제고(提高). 문학과 문인의 암묵적 등급화로 문학의 질적 향상 유도.

※이 사업은 우선 문학의 중요갈래인 '시, 소설, 희곡' 셋으로 한정한다.

토론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박 철 화(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교수)

- 창작자와 향유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 수요자 중심에 있지 않고 창작자 중심에 서 있는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보상 개념을 버리고 문학과 문학인의 자생적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이는 궁극적으로 문학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됨.
- 문학에 대한 지원과 문학인에 대한 지원을 지혜롭게 구분해야

원칙적으로는 예술 혹은 예술가라고 해서, 다른 분야나 그 분야의 종사자와 달리 특별하게 국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없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술은 예술가 자신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삶을 향한 도정에서 많은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 예술은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기도 하다. 아마도 우리가 이 이 자리에 모여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그런데 자율성을 근본으로 하는 문화예술에서 국가의 지원이란 자칫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이 스스로 수요자를 발굴하는 자생력을 갖기 보다는 외부적 지원에 더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창작자들의 목청만이 두드러질 때, 창작자 못지않게 중요한 예술 향유자, 즉 시민들의 목소리가 파묻힐 수 있다.¹⁾ 따라서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창

1) 향유자라는 개념은 단순한 상품 소비자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다. 문화예술은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향유자를 필요로 한다.

작자와 향유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겠다.

바로 앞에서 말했지만, 문학 분야에 대한 지난 정부의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발이 수요자 중심에 있지 않고 창작자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좋은 창작물이 있어야 향유자 층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준 있는 향유자 층이야말로 뛰어난 창작품을 이끌어내는 바탕이기도 하다 물론 닭과 계란의 비유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적 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지원이 설령 예술가라 하더라도 사적인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바람직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창작자 개인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졌던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전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 개념이 앞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 개념을 버리고, 문학과 문학인의 자생적 생산력을 높이는 쪽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 문학인이 빈곤계층처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허무는 일이다. 지원 정책의 근거로 사용되는 문인 연간 소득 관련 자료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평범한 국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애쓰며 살고 있는데, 문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소득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인 소득통계를 보면 어느 청소년이 미래에 이 고된 노동을 선택할까 걱정이 앞선다. 우리 모두 엄살 부리지 말자. 소득이 없으면 국가에 손을 벌리기 전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문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광렬 연구위원의 자료에 담긴 노르웨이의 경우에서 보듯, 우리 문학은 우리의 말을 가꿔나가는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자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한글을 문자로 사용한 지는 불과 1백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이 30년 넘게 일제의 방해 속에 놓여 있었고, 그러니 우리의 한글은 60년 조금 더 되었을 뿐인 신생의 언어인 것이다. 프랑스어가 라틴어에서 벗어나 16세기 이해 5백년 동안 같고 닮은 것에 비하면 아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석(原石)에 불과하다. 소통되지 않는 말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한글을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글을 가꿔나가는 데에 있어 문학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점이다. 우리의 사유와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문학은 우리 영혼의 헌법이다.

그러니 문학에 대한 지원과 문학인에 대한 지원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 우리 문학 자체의 생산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에 반해 문학인 개인에 대한 생계 보전 차원의 지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문학인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그의 창작 결과물에 대한 인정과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문예지 수록 우수작품 선정, 우수 창작집에 대한 지원과 같이 겹치는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해서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 작가에 대한 지원일 경우, 작가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우수한 창작자에게 과감한 지원을 하여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창작환경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정신적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창작자들의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국제적 감각을 갖추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그 단체가 구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체 간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이념에 따라 특정 단체에 지원이 몰리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국제화 가능성이 있는 장르에 대한 적극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텍스트 번역과 보급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굳이 겹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희곡, 무용 등의 대본을 바탕으로 한 공연과, 조형예술의 삽화가 들어가는 동화의 보급과 같은 일은, 문학과 공연예술, 문학과 조형예술의 융합인데, 언어라는 매개물이 덜 중요한 이러한 작업은 현장성과 접근 용이성이라는 차원에서 외

국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유용한 도구다. 과감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희곡작가, 동화작가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산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학교육을 입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실제로 학교를 떠나면 문학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문학 향유자를 넓히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 사업은 창작자들에게 단순한 지원이 아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됨으로써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문학을 입시에 가둬두지 말고, 학교에 창작자를 파견하여 문학창작의 체험을 나누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문학을 향유하는 새로운 주역이 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문화관이나 도서관과 공동으로 문학감상, 문학교육, 문학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것은 우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넓히고,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두서없는 제안이 발제자와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이자 토론을 맺겠습니다.

토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전한 불륜을 맺을 수 있는가

박금산(작가)

- 예술지원정책의 최고 수준은 수요를 불러오는 공급을 창출하는 것
- 신진작가해외연수를 그룹으로 공모, 사후 포상제도의 신설 등 정책 아이디어 제안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와 관계되어서 했던 일을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기관에 어리광 부려서 용돈을 타냈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신진작가창작집발간 지원을 신청했다가 2년 연속 탈락했던 경험입니다. 책도 내고 싶고 지원금도 받고 싶어서, 작가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인 그것을 신청하고 떨어졌을 때는 참 야속했습니다. 그 뒤로 무슨 변고가 제 주변에 생긴 건지, 지금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지원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이렇게 참석 요청을 받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받은 지원금의 대강을 떠올려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선정 200만 원, 창작집 『생일선물』 우수문학도서 선정 인세 200만 원, 신진작가해외연수 지원 선정 800만 원, 창작집 발간 지원금 1200만 원, 연작 장편 『바디페인팅』 우수문학도서 선정 인세 200만 원(1200만 원을 지원받고 출간한 그 책), 문학라디오 출연료 10만 원(?), 사이버 문장에 중편 수록 원고료, 사이버 문장 산하 청소년 웹진 글틴에 단편 수록 원고료. 이 정도 되니까 총액을 합산하면 소심한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키워드로 이상한 소설을 썼다고 해서 동료 작가들과 문학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디페인팅』에는 지원신청절차에서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그 세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로 신문에도 났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사 측으로부터 인터뷰 요청도 받고 했으니까 참 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요청하신 기자께서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냐고 에둘러 묻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기사는 그런 내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난 문화예술위원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수혜를 대폭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예술위원회를 옹호하다 보니 마치 뇌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아부하지는 말자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상황을, 저의 문학의 현재를 잘 그려보자는 의도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는 하나의 문학 제도로서 존재했지 비판이나 옹호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다음 그 신문사와 유사하게 유명한 한 신문에서는 시론을 내면서 오죽하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를 쓴 소설까지 나왔겠냐고, 제 소설을 언급하면서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히 저는 그 차원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토론 요청을 받고 발제문과 여러 자료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학문도 생겨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양성되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분야가 예술 영역에서 이론적이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학문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작성될 예술사에서는 아마도 예술지원정책이 중요한 한 꼭지로 배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국가 차원에서 예술지원정책을 포기한다면 기업 차원에서는 지원책을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과 시장이 분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국가 차원의 예술지원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저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받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책자

료집들을 보면서 실감이 잘 안 되는 규모의 예산액과 퍼센티지 등의 숫자를 접하니 다른 욕심도 생겼습니다. 나는 아주 소박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테마에 의해서 저도 선택을 받고 집중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명확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선택적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범위와 규모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임”을 모토로 삼는 선택과 집중에서 지원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참 아득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창작자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면, 출판사라면, 공연유치업체라면 생각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문학은, 특히 창작은 개인의 일이라 명확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에서, 창작집 발간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했던 원고가 책으로 묶여 나오니 그 책은 우수문학도서가 됐다는 사실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졌으니까 결과가 달라졌다고 하는 말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혼합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입니다. 소설집을 내기 위해 원고를 더 정리했고, 책을 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지원 선정 사례를 보면 생활이 넉넉할 텐데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결과를 만나곤 합니다. 지면이 한정적이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선정 결과가 재정지원 도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배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젊은 작가들에겐 지원금 수혜가 하나의 권위있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환되곤 합니다. 창작집 발간 지원금을 받게 되면 작품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출판이 쉬워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원고라고 밝히면 출판이 더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여러 모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도라는 점은 이 점에서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원금을 수혜 받

았으니 할 말이 공한 편인데 수혜를 받지 못해서 허탈감과 낭패감, 패배감을 겪게 되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떨지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예술진흥기금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존중하면서 예술 소비자(이런 말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대세라고 정책자료집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급자, 소비자라는 말 자체에 들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시장의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대체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경험한 신진작가해외연수지원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예가 될 듯합니다.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체계서 수요의 욕구가 생겨난 것이고, 인도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디페인팅』의 소재가 되었고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내내 했던 생각은 불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태어난 소설이라는 장르를 창작하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글쓰기가 유지된다는 것이 작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좋아서 시작해 놓고, 누가 그걸 하라고 강요했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원래가 그런 것인데 작가로 살면서 가난 타령이냐고 자탄을 좀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령 한국문학번역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문화재보호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과 같은 지역별 지원 재단, 그리고 대산문화재단과 같은 기업의 정책팀이 있습니다. 수혜자들에게 재원이 어디서 확보되는 것인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저와 같은 경우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도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복권기금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세금에 의해서 조성된 예산이라면 부채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고흐에게 동생 테오가 없었으면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제 생각은 어떻게든 고흐는 물감값을 구했을 것이라고 믿는 편입니다. 고흐는 살아 생전에 그림이 안 팔렸던 화가로 유명합니다.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예술에 대한 직관과 예술인 공동체에 대한 선망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테오가 기업이나 자선가가 아니라 국가라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기업 광고를 위해서 행하는 메세나가 아니라 는 것. 이 시대에는 국가가 특정 인물이나 권력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선택과 집중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면 자존심을 걸고 수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예술인의 양심입니다. 예술이 관과 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수 명이 연장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불륜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의 바람은 건전하고 건강한 불륜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끼어들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짚어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에 그 건강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수요를 불러오는 공급을 창출 하는 것이 예술지원정책의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요에 맞춰 공급책을 정비 하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논리입니다. 감동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예술은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또 어떤 공급을 해 주실지, 권할 수 있는 공급을 건의드릴 수는 없지만, 저로서는 기 대하는 바가 큼니다.

정책의 변화를 보자면 출간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느껴지는데 문학에서 출간원고를 보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더 이상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 법은 없습니다.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 낫고, 사후지원을 늘리는 정책은 매 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을 선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미적으로도 훌륭해 보입니다. 문학분야에서도 멋진 사후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애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회성을 극복하 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거대한 문학인구를 염두에 둘 때 예산을 증대하지 않 고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면이 한정 되어 있으니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문득 떠오른 건의사항을 말씀드 려볼까 합니다. 터무니없는 것일 수도 있으니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진작가해외연수를 그룹으로 공모해 보는 것
2. 작가들에게 학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NEA의 경우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젊은 작가들의 교육도 중요
 - 장르간 교차도 재미있을 것.
 - 경우에 따라 돈을 주면서 교육·학습의 기회를 주기도 할 것.
 - 영어회화 배우기를 독려하는 것도 현 정부의 방침 및 한국문학의 국제화에도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음.
3. 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
 - 경비 운영의 투명성 면에서는 매우 확실한 방법
4. 사후 포상 제도를 신설해 보는 것(완료 사업에 대하여)
5. 문학 창작 프로젝트 공모
6. 집필 공간 제공 혹은 저가 임대
 - 지자체 혹은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음.

토론

문학 분야 창작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위한 토론사항

이 경 호(문학평론가, 『작가세계』 주간)

-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 : 창조자? 소비자?
-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 바람직한 예술의 전달과 수용 역할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나?
- 소설 분야와 지원방안 아이디어
 - '스토리뱅크' 실패 사례
 - '중간문학' 혹은 '장르문학'으로 불리는 소설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

1. 맺음말에서 발제자는 “난관에 부딪힐 때는 우리가 세운 비전과 미션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비전과 미션의 최우선 과제로 “예술, 예술가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8대 지원목표 중에서 이러한 비전과 미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창조의 부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8대 과제의 전체적인 비중은 오히려 전달과 수용 부문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예술창작-매개-향유는 통합적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창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발제자도 참고한 정광렬 씨의 논문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가 지원보다는 예술 진흥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예술진흥의 성과는 1) 양적인 측면에서 예술행사의 활성화 2) 예술향유수준 3)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4) 예술의 우수성 5)취약계층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능력) 제고 등 5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발제자와는 달리 창조보다 오히려 전달과 수용의 측면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광렬 씨는 발제자도 인용했듯이 미국 등지에서 문예진흥정책의 방향이 "창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환되는 경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그러한 방향 전환이 갖는 이해득실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발제자의 주장은 이러한 정광렬 씨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막연하게 "난관에 부딪힐 때는"이라는 단서조항의 취지가 궁금해집니다.

2.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미국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의 심위원회에 비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참여비율이 14퍼센트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전문가가 지원심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제자께서 문화예술위원회의 8대 과제 중에서도 전달과 수용보다 창조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혹시 본인 스스로가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에 속해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그러한 입장을 내세우게 한 것은 아닐는지요?

3. 심사와 연관해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광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창작지원 심사위원의 결정권을 문화예술위원들이 갖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위원들이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합의제라는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예술 장르별 문화예술위원들이 자가 소속 장르의 지원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겠죠.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광렬 씨가 제시한 2008년 정기 공모 지원심의의원 구성원칙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사업 정기공모 지원심의회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심의회에 참여한 인사 제외"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2007년까지 심사위원 선정에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을 주최측의 어느 분께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달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예지와 작품집을 출간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창작에 종사하는 분들도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심의과정에 관심과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발제자께서 수요자 중심의 향유활동과 참여활동(예술의 생활화)과 문화예술의 매개활동(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보면서 문예연감자료를 분석한 정광렬 씨의 분석이 상기됩니다.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행사수는 늘어났는데 문화예술향유수준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학의 경우 2005년에는 148건이었는데, 2006년에는 469회로 무려 216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람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로또기금'이라 불리는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있는 형편에서 바람직한 예술의 전달과 수용 역할이 발제자처럼 창작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만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제자께서 시인이라서 그런지 수요자 중심의 향유활동과 참여활동이나 문화예술의 매개활동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사례들이 시 분야 쪽에 치중되어 있는 듯하여 저는 소설 분야와 연관된 지원 방안을 하나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소설가협회에서 우리나라의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스토리뱅크'라는 창작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받아 실천에 옮긴 바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단편소설 분량의 스토리를 청탁하여 회수된 원고에 1차 원고료를 지불하고 회수된 스토리들을 저장하였다가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인접 문화예술분야에 스토리를 제공하고 저작권료를 작가들에게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사업인데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협회의 몇몇 간부들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위 '스토리뱅크' 사업에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다른 공연예술이나 대중예술의 대본으로 삼을 만한 참신한 스토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학이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소통하거나 문화예술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는 '중간문학', 혹은 '장르문학'으로 불리는 소설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문단의 젊은 작가들은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적 상상력

과 표현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상과학, 추리, 공포, 팩션 등의 장르적 성격을 본격문학과 접목시키는 작업인데요. 이와 더불어 전자출판협회에서 공모하는 <디지털문학상>과 조선일보사에서 공모하는 <뉴웨이브문학상>의 실천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설 중에서 시장친화력이 높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창작의 수준이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중간문학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고, 문학과 다른 예술장르의 소통 및 문학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